

## 현 의료계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조사

김미주\*

### 1. 서론

최근 의료계를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보험통합에 이어 의약분업 실시,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초유의 의사 집단 폐·파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운동의 확산으로 인한 환자 권리 신장 분위기, 첨단 생명공학의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제 몫을 다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시대에 우리 의료인들이 놓여 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의사들의 집단 폐·파업에서 볼 수 있듯이 분명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현 의료계에 산재해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행위별수가제라는 지불보상방식과 정부의 수가통제가 맞물려 과잉진료, 부당/허위청구의 문제가 산출되고 있으며, 국민들도 사회보험하의 도덕적 해이에 빠져 의료서비스의 빈도와 강도를 나날이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의료제도가 많은 윤리적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의료인의 일원인 간호사도 현 의료계의 윤리적 문제에 책임이 있으며, 실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현재 이 땅의 간호사들이 어떤 문제를 의료계의 윤리적 맹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본 조사를 통해 간호사의 윤리의식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의료계의 윤리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들과 비교하여 간호사와 타 집단과의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종간에 같은 사안을 두고 얼마나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해당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2. 연구방법

### 2.1. 자료수집 방법

본 조사는 2000년 10월 9일부터 2001년 5월 8일까지 인터넷상의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nurse.or.kr>)에서 이루어졌다. 홈페이지의 회원공간 설문조사 메뉴에 설문을 게재하고, 이에 응답한 13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 2.2. 설문도구

현 의료계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모두 28문항을 게재하였으며, 이 중 5문항은 인적특성을 묻는 것이었다. 설문의 내용은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의료윤리문제,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 생명윤리상의 쟁점사항, 현행 윤리교육 등이었다. 설문의 개발 및 구성은 연구자가 기존문헌을 참조하여 만들었으며<sup>1)</sup>, 설문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사 3인과 보건전문가 1인의 검토를 받았다. 문항 및 각 답변에 대한 4인의 이해가 동일함을 최종 확인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 2.3. 분석방법

모든 문항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기존 연구 중에서 본 연구와 설문내용이 유사하여 비교해 볼 만한 문항에 대해서는 SAS system for Windows ver 6.12를 이용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였다.

### 2.4. 연구의 제한점

응답을 할 수 있는 간호사가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간호사 중에서도 윤리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설문에 응하였기에, 우리나라 전체 간호사의 견해를 대표할 수 없다는 선택편견(selection bias)을 가진다.<sup>2)</sup>

1) 설문지를 공개해 주신 권복규, 황상익, 정유석 연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그러나 (뒤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겠지만) 연구결과 온라인 조사라는 한계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 3. 조사결과

#### 3.1. 응답자의 인적 특성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62.7%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35.8%로, 응답자의 대부분(98.5%)이 2, 30대임을 알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의 회원현황<sup>3)</sup>에서 연령별 구성을 보면 20대가 55.7%, 30대 34.2%, 40대 9.2%, 50세 이상 0.9%로 본 조사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거주지는 서울이 45.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나머지도 도시지역 거주자가 대부분으로 농어촌 지역은 1.5%에 불과하였다. 대한간호협회의 회원현황을 보면 서울 거주자가 27%여서 본 조사에서는 서울 거주자의 응답률이 높다 하겠다.

종교는 무교가 47.0%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30.6%, 천주교 14.9%, 불교 6.7%의 순이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통계 무교 43.9%, 기독교 24.0%, 천주교 5.8%, 불교 25.5%, 기타 0.8%<sup>4)</sup>와 비교했을 때, 본 조사에 응답한 간호사 중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 적었다.

간호사 경력은 10년 미만이 8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현 근무지는 종합병원이 48.9%로 가장 많았다. 근무지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의 회원현황을 보면 병원급 이상 77.8%, 의원 1.6%, 보건소 4.8%, 기타 15.9%로 본 조사와 대체로 일치한다.(표 1-5)

표 1. 응답자의 연령 (N=134)

연령	숫자	%
20-29세	84	62.7
30-39세	48	35.8
40-49세	2	1.5
50세 이상	0	0.0

표 2. 응답자의 거주지 (N=134)

거주지	숫자	%
서울	61	45.5
광역시	39	29.1
중소도시	32	23.9
농어촌 지역	2	1.5

표 3. 응답자의 종교 (N=134)

종교	숫자	%
무교	63	47.0
기독교	41	30.6
불교	9	6.7
천주교	20	14.9
기타	1	0.8

표 4. 응답자의 간호사 경력 (N=134)

근무년한	숫자	%
1년 미만	26	19.4
1-3년 미만	30	22.4
3-5년 미만	29	21.6
5-10년 미만	33	24.6
10-20년 미만	16	12.0
20년 이상	0	0.0

3) 대한간호협회 전산실. 회원실태조사. 1999년말 기준

### 3.2. 가장 문제가 되는 의료윤리 문제

10가지의 의료윤리 문제(뇌물관행, 치료거부, 영리를 위한 진료행위 조절, 태아성감별과 임신중절, 장기매매, 안락사, 의료형평성의 문제, 관리가 불충분한 임상시험, 환자의 비밀보장 소홀, 환자에 대한 불친절)<sup>4)</sup>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 3개에 대해 1, 2, 3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환산점수로 해당 문제의 심각성 순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점수환산을 위해 1순위에는 3점, 2순위에는 2점, 3순위에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 합을 구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표 6)

간호사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의료윤리 문제는 근소한 차로 '뇌물관행'<sup>5)</sup>이었으나 점수차가 너무 적어 '영리를 위한 진료행위 조절'<sup>6)</sup>보다 더 심각하다 하기에

표 5. 응답자의 현 근무지 (N=133)

근무지	숫자	%
종합병원	65	48.9
병원	22	16.5
의원	3	2.3
보건소	2	1.5
기타	24	18.0
쉬고 있음	17	12.8

표 6.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의료윤리 문제(괄호안은 백분율)

	1순위	2순위	3순위	환산점수	
영리를 위한 진료행위 조절	50( 37.3)	16( 11.9)	18( 13.4)	200( 24.9)	II
뇌물관행	25( 18.7)	42( 31.3)	43( 32.1)	202( 25.1)	I
치료거부	21( 15.7)	20( 14.9)	21( 15.7)	124( 15.4)	III
의료형평성의 문제	21( 15.7)	17( 12.7)	17( 12.7)	114( 14.2)	IV
환자에 대한 불친절	10( 7.5)	18( 13.4)	7( 5.2)	73( 9.1)	V
관리가 불충분한 임상시험	3( 2.2)	7( 5.2)	10( 7.5)	33( 4.1)	VI
태아성감별과 임신중절	3( 2.2)	6( 4.5)	12( 9.0)	33( 4.1)	VI
안락사	1( 0.7)	2( 1.5)	1( 0.7)	8( 1.0)	IX
장기매매	0( 0.0)	3( 2.3)	4( 3.0)	10( 1.2)	VIII
환자의 비밀보장 소홀	0( 0.0)	3( 2.3)	1( 0.7)	7( 0.9)	X
합 계	134(100.0)	134(100.0)	134(100.0)	804(100.0)	

4) 공보처,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1996 : 95.

5)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설정하였다.

6) 여기서 말하는 뇌물관행이란 의사나 간호사가 뇌물을 받고 특정환자만 잘 돌보아 주는 경우, 교통사고 환자를 사례를 받고 특정병원만 소개해 주는 경우, 관련 이익집단과의 부당한 금전거래 등이 그 예가 된다.

7) 여기서의 영리를 위한 진료행위 조절이란 이익을 위하여 과도한 검사나 불필요한 치료 강요, 부당 불법

무리가 있다. 두 문제가 전체 환산점수의 50%를 차지하는바, 타 문제들에 비해 매우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 다음으로 치료거부(예; 응급실에서 의사의 치료거부 또는 치료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개인적 이유로 자의퇴원하는 환자측의 치료거부), 의료형평성의 문제(예; 돈 있는 환자는 대우받고 돈 없는 환자는 찬밥신세), 환자에 대한 불친절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환자의 비밀보장 소홀, 안락사, 장기매매 등은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 각 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인식

이 절에서는 위에서 판정된 간호사들이 인식하는 의료윤리 문제의 심각성 순위에 따라, 해당 항목의 내용 및 결과를 살펴보겠다.

#### 3.3.1. 뇌물관행

의료인들이 제약회사나 의료기회사로부터 정당한 실비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절대 다수(99.2%)의 응답자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간호사들이 의료계의 뇌물관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간호사들이 없어야 할 관행으로 생각하였다(78.6%).

표 7. 제약 및 의료기 회사로부터의 금품수수 (N=134)

	응답자 수	%
자주 있다	104	77.6
가끔 있다	29	21.6
거의 없다	1	0.8
전혀 없다	0	0.0

표 8. 금품수수에 대한 의견 (N=134)

	응답자 수	%
우리나라 사회풍조상 있을 수 있는 관행이다	22	16.4
보기 좋지는 않지만 눈감아줄 수 있는 관행이다	7	5.2
없어져야 할 관행이다	105	78.4

청구를 말한다.

### 3.3.2. 영리를 위한 진료행위 조절

현행 의료보험제도와 수가의 미비로 말미암아 의료기관들이 부당청구/허위청구나 진료상의 왜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주 있다'가 67.2%, '더러 있다'가 28.4%로 이를 합하면 95.6%이다. 반면 '별로 없다'는 4.4%, '전혀 없다'는 0%였다. 이 결과를 볼 때 간호사들이 인식하기에 현 의료계의 부당청구, 과잉진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표 9)

### 3.3.3. 치료거부 - 의료인의 집단행동

의료인의 집단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가 43.3%, '가능하다'가 52.2%로 두 견해가 맞서는 결과를 보였다.(표 10)

더 나아가 최근 의약분업으로 촉발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61.2%)가 국민의 건강보다는 의사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하였다.(표 11)

**표 9. 영리를 위한 진료행위 조절 (N=134)**

	응답자 수	%
자주 있다	90	67.2
더러 있다	38	28.4
별로 없다	6	4.4
전혀 없다	0	0.0

**표 10. 의료인의 집단행동 (N=134)**

	응답자 수	%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절대 있을 수 없다	58	43.3
순수히 전체 사회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허용되어야 한다	50	37.3
직업인으로서 자신 및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다	20	14.9
잘 모르겠다	5	3.7
기타	1	0.8

**표 11. 2000년 의사들의 집단 폐·파업 (N=134)**

	응답자 수	%
우리나라 의료개혁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행위였다	24	17.9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로운 투쟁이기는 하지만 방법이 지나쳤다	26	19.4
국민의 건강보다는 의사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는 측면이 더 강했다	82	61.2
잘 모르겠다	2	1.5

이에 대한 간호계의 대처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했다'가 41%, '의사들의 파업철회를 요구하는 반대성명을 발표하여야 했다'가 32.8%였다. 반면, '같은 의료인이므로 물심양면으로 지지하여야 했다'는 16.4%에 불과하였다.

### 3.3.4. 환자에 대한 불친절 - 설명의 의무

간호사들이 환자의 간호와 관련하여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느냐는 물음에 '충분히 설명을 해 준다'가 30.6%에 불과하였다. 또한, 환자들이 설명에 어느 정도나 만족한다고 여기느냐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 9.0%, '만족한다' 41.0%로 응답자의 절반이 자신들의 설명에 환자가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표 12, 13)

### 3.3.5. 관리가 불충분한 임상시험

환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약물이나 치료법 시험시 지켜져야 할 윤리준칙(예; 충분한 설명과 동의서 작성)들이 실제 의료 환경에서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간호사들은 다소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긍정적 답('매우 잘 지켜진다'와 '잘 지켜지는 편이다')이 34.5%인 데 비해, '잘 지켜지지 않는다'와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가 이보다 약간 많은 37.3%였다.(표 14)

표 12. 간호와 관련한 설명 (N=134)

	응답자수	%
충분히 설명해 준다	41	30.6
보통이다	53	39.6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40	29.8

표 13. 간호사가 생각하는 설명에 대한 환자만족도 (N=134)

	응답자수	%
매우 만족한다	12	9.0
만족한다	55	41.0
보통이다	37	27.6
만족하지 못한다	29	21.6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1	0.8

표 14. 임상시험시 윤리준칙 준수정도 (N=134)

	응답자 수	%
매우 잘 지켜진다	12	9.0
잘 지켜지는 편이다	34	25.4
보통이다	29	21.6
잘 지켜지지 않는다	42	31.3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8	6.0
잘 모르겠다	9	6.7

표 15. 인공임신중절은 살인행위인가? (N=134)

	응답자 수	%
그렇다	80	59.7
아니다	37	27.6
잘 모르겠다	17	12.7

## 3.3.6. 인공임신중절 및 인간복제

낙태(인공임신중절)를 살인행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가 59.7%, '아니다'가 27.6%였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현행법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낙태에 대한 법률적 용이 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과반수 정도(52.2%)가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예상될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까지는 허용하여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 외, 가족계획상의 이유나 모체가 원한다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표 15, 16)

인간복제에 대해서는 대부분(82.8%)이 반대하였다.(표 17)

## 3.3.7. 장기매매

이식용 장기의 매매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부분(82.1%)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장기매매의 허용정도에 대한 질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철저히 단속하여 근절하여야 한다'가 46.3%, '인정하자'가 48.5%로 엇비슷하였다. '인정하자' 중에서 '장기매매는 필요악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소규모

표 16.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 (N=134)

	응답자 수	%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27	20.2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예상될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까지는 허용하여야 한다	70	52.2
가족계획상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 등 광범위하게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16	11.9
산모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모체가 원하는 경우 가급적 허용되어야 한다	18	13.4
기타	3	2.3

표 17. 인간복제 (N=134)

	응답자 수	%
인간존엄성에 위배되므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111	82.8
자식을 여윈 경우 등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12	9.0
잘 모르겠다	8	6.0
기타	3	2.2



거래는 인정하여야 한다'에 9%,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관리체계(예; 장기거래센터)를 확립하여 매매를 완전 양성화하는 것이 범죄 등과의 연계를 단절시킬 것이다'에 39.5%가 응답하여 소규모 거래보다는 완전양성화 쪽에 비중을 더 두고 있었다.

미성년자가 부모 혹은 타인을 위해 생명과 무관한 장기(예; 신장, 간장 일부 등)를 기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과 부모의 동의하에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성인이 될 때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36.6%였다.(표 18-20)

### 3.3.8. 안락사

불치환자의 안락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찬성이 65.6%, 반대가 17.9%로 나타났다. 찬성 중에서도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할 수 있다'가 42.5%로 소극적 안락사 23.1%보다 더 많았다.(표 21)

### 3.3.9. 환자의 비밀보장 소홀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상의 비밀을 잘 지키고 있는냐는 물음에 긍정적 답변이 35%, 부정적 답변이 29%로 비등하였다.(표 22)

### 3.3.10. 간호대학에서의 윤리교육

현행 간호교육 내용이 간호사의 윤리 함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냐는 질문에 '도움이 안 된다'가 61.2%, '도움이 된다'가 38.8%였다. 간호사 보수교육의 내용 중에

표 18. 장기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N=134)

	응답자수	%
그렇다	110	82.1
아니다	3	2.2
잘 모르겠다	21	15.7

표 19. 장기매매의 허용정도 (N=134)

	응답자수	%
철저히 단속하여 근절	62	46.3
개인간 소규모 거래만 인정	12	9.0
완전양성화	53	39.5
잘 모르겠다	6	4.5
기타	1	0.7

표 20.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N=134)

	응답자 수	%
성인이 되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절대로 금지해야 한다	49	36.6
본인과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해야 한다	79	59.0
부모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허용해야 한다	3	2.2
잘 모르겠다	1	0.7
기타	2	1.5

표 21. 불치환자의 안락사 (N=134)

	응답자 수	%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4	17.9
더 이상의 생명연장을 위한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사하도록 한다	31	23.1
편하게 죽음에 이르도록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의료인의 도리일 수 있다	57	42.5
잘 모르겠다	22	16.5

표 22. 환자의 비밀보장 (N=131)

	응답자 수	%
매우 잘 지켜진다	18	13.7
잘 지켜지는 편이다	41	31.3
보통이다	34	26.0
잘 지켜지지 않는다	34	26.0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4	3.0

의료윤리 강좌를 개설할 경우 수강하실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참석하겠다'가 91.8%였다.

### 3.4. 타 집단과의 비교

기존 연구 중에서 본 연구와 설문문항이 유사하여 비교해 볼 만한 문항에 대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여러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유사한 설문이 있는 연구로 응답자가 의사인 경우 3편, 일반인 대상 1편이 검색되었다. 귀무가설( $H_0$ )을 "간호사와 의사(일반인)의 견해가 같다"로, 대립가설 ( $H_1$ )을 "간호사와 의사(일반인)의 견해가 다르다"로 설정한 후,  $\chi^2$ -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3)

위의 카이제곱 검정결과 통계학적으로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4.1. 제약 및 의료기 회사로부터의 금품수수에 대한 의사집단과의 견해차

제약 및 의료기 회사로부터의 금품수수 문제에 대해 의사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 본 조사의 간호사들은 절대 다수(92.2%)가 이러한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본 데 반해, 의사들은 '있다'가 49.9%, '없다'가 50.2%로 근소한 차근 하지만 '없다'로 대답한 수가 더 많았다.

표 23. 타 집단과의 비교 (카이제곱검정)

	비교대상	본 조사 견해와의 일치여부	p 값
계약 및 의료기 회사로부터의 금품수수	의사1	불일치	0.001*
영리를 위한 진료행위 조절	의사1 의사2	불일치 불일치	0.001* 0.001*
충분한 설명	의사1	불일치	0.004*
설명에 대한 환자만족	의사1	일치	0.340
임상시험시 윤리준칙 준수정도	의사1	일치	0.121
낙태는 살인인가	일반인	일치	0.707
장기매매의 허용여부	의사1 일반인	불일치 불일치	0.063* 0.006*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의사1	불일치	0.001*
불치환자의 안락사	의사2 의사3	불일치 불일치	0.018* 0.001*

주: 의사1<sup>8)</sup>, 의사2<sup>9)</sup>, 의사3<sup>10)</sup>, 일반인<sup>11)</sup>의 출처는 각주와 같다.

#### 3.4.2. 영리를 위한 진료행위 조절에 대한 의사집단과의 견해차

본 조사의 간호사들은 부당청구나 과잉진료가 현재 존재한다고 95.6%가 응답한 반면, 한 연구에서<sup>12)</sup> 의사들은 진료비 부당청구가 '자주 있다' 10.1%, '더러 있다' 60.1%, '거의 없다' 18.6%, '전혀 없다' 1.1%, '잘 모름' 10.1%로 대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 또한 과잉진료와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서울, 경기 지역 일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149명의 응답결과<sup>13)</sup>와는 더더욱 시각차가 크다( $p=0.001$ ).

8) 구영모, 권복규, 김옥주, 황상익, 의료윤리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 의사들의 인식조사. 의료·윤리·교육 1999; 2(1): 43-61.

9) 서흥관, 일차의료에서 만나는 의료윤리 문제. 가정의학회지 1999; 20(5): 575-578.

10) 김두희, 임상의들의 의료 윤리관. 한국농촌의학회지 1999; 24(2): 369-385.

11) 정유석, 박일환, 박석건,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인식조사. 의료·윤리·교육 2000; 3(1): 99-111.

12) 구영모, 권복규, 김옥주, 황상익, 의료윤리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 의사들의 인식조사. 의료·윤리·교육 1999; 2(1): 43-61.

### 3.4.3. 충분한 설명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의사집단과의 비교

환자에 대해 얼마나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가평가에서 두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p=0.004$ ). 의사들은 '충분히 설명해 준다' 46.3%, '보통이다' 42.0%,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 11.7%로 응답한 반면, 간호사는 '충분히 설명해 준다' 30.6%, '보통이다' 39.6%,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 29.8%로 부정적인 답이 의사에 비해 더 많았다. 간호사 스스로 환자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 3.4.4. 장기매매의 허용여부에 대한 의사 및 일반인과의 견해차

간호사들은 장기매매의 허용정도에 대한 질문에 '철저히 단속하여 근절하여야 한다'가 46.3%, '인정하자'가 48.5%로 엇비슷하였다. 반면, 의사들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58.2%, '경우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 35.4%로 절대 금지가 더 우세하여 두 집단간 견해에 차이가 있었다( $p=0.063$ ). 또한, 일반인의 경우 절대 불가 28.5%, 일부 허용 62.0%, 모르겠다 7.0%로 간호사 집단보다 절대 불가가 적어 견해 차이를 보였다( $p=0.006$ ).

### 3.4.5.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에 대한 의사집단과의 견해차

본 조사에서는 미성년자가 부모 혹은 타인을 위해 생명과 무관한 장기(예; 신장, 간장 일부 등)를 기증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과 부모의 동의하에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의사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절대 금지해야 한다' 71.7%, '본인과 부모의 동의하에 허용해야 한다' 20.3%로 간호사와는 달리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

### 3.4.6. 불치환자의 안락사에 대한 견해차

본 조사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찬성이 65.6%(소극적 안락사라면 23.1%, 적극적 안락사까지 42.5%), 반대가 17.9%, 잘 모르겠다 16.5%로 나타났는데, 이를 의사를 대상으로 한 두 편의 연구와 비교해 보았더니 의견에 차이가 있었다. 두 편 모두 간호사집단에 비해 안락사에 대한 반대가 더 많은 양상을 보였다.

13) 서홍판, 일치의료에서 만나는 의료윤리 문제. 가정의학회지 1999; 20(5) : 575-578.

#### 4. 고찰 및 결론

본 조사 연구는 간호사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묻는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 측정이라 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태생적으로 선택편견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먼저 실토한다. 그러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sup>14)</sup>에서 연령, 근무경력, 종교의 대상자 일반적 특성이 본 조사 응답자의 그것과 유사하며, 대한간호협회 1999년 회원현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특성들은 일치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라는 제한점이 생각보다 크게 반영되지 않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함의를 밝히고 결론을 도출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발표하는 바이다.

1. 우선, 본 조사의 간호사들이 인식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의료윤리 문제는 '영리를 위한 진료왜곡'과 '뇌물관행'이었으며 그 뒤를 '치료거부', '의료형평성의 문제', '환자에 대한 불친절'이 이었다. 반면, '환자의 비밀보장 소홀', '안락사', '장기매매'는 비교적 덜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맥상통한다. 구영모 등<sup>15)</sup>의 조사결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법적 환자유치, 영리를 위한 진료왜곡이었으며, 정유석 등<sup>16)</sup>에서 일반인들은 과잉진료와 치료거부를 꼽았다. 생명의료윤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안락사, 장기이식, 첨단 생식기술, 임상시험 등의 문제들은 순위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간호사, 의사, 일반인 모두 생명의료윤리의 논쟁적 문제들보다는 당장 우리의 의료현실에 부딪치는 문제들, 즉 직업윤리적 측면을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의료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직업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이종(異種) 의료인들간 인식 차는 어떠한가를 보자.

본 조사연구 결과,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뇌물관행'과 '영리를 위한

14) 성미혜. 임상간호사들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999 ; 29(3) : 551-562.

15) 구영모, 권복규, 김옥주, 황상익. 의료윤리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 의사들의 의식조사. 의료·윤리·교육 1999 ; 2(1) : 43-61.

16) 정유석, 박일환, 박석건.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의식조사. 의료·윤리·교육 2000 ; 3(1) : 99-111.

진료행위 조절'에 대해 의사, 간호사간 견해차가 분명히 있었다. 두 전문직 모두 계약 및 의료기 회사로부터의 금품수수나 부당청구/과잉진료가 현존하는 윤리적 문제라고 보았으나, 그 정도에 있어 간호사가 의사에 비해 더 심하다고 파악하였다. 이는 많은 경우, 금품수수나 부당청구/과잉진료의 문제가 의사들과 주로 관련이 있기에 간호사는 혹독하게, 의사들은 관대하게 평가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두고 같은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간 인식차가 큰 것은 사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실태파악과 함께 합당한 쪽으로의 인식교정이 요청된다.

3. 더 나아가, 2000년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발생하였던 초유의 의사 집단 폐·파업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을 보면 두 직종간의 인식 차를 좀 더 알 수 있다. 의료인의 집단행동에 대해 과반수 이상(52.2%)이 의료인이라도 파업을 할 수 있다(절대 있을 수 없다는 43.3%)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61.2%)의 간호사들이 지난 해의 의사 집단 폐·파업을 국민의 건강보다는 의사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의사협회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의사들이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간호사들을 설득하지 못하였음을 말해준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 집단 폐·파업에는 보건의료계의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는바, 이에 대한 정당한 심판과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지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 의료계의 윤리적 문제, 특히 직업윤리적 측면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의사와 간호사간 인식차에 대한 이런 모습들은 생명의료윤리의 쟁점사항들에 까지 이어진다.

장기매매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는 의견의 합일을 보이나, 그 허용여부와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두 직종간 이견을 보였다. 또한 안락사에 대한 견해도 달랐다. 간호사들은 의사들에 비해 장기매매를 양성화하자는 쪽으로,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안락사를 수용하는 쪽으로 전향적 경향을 보였다. 안락사의 경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sup>17)</sup>에서도 소극적 안락사는 80%, 적극적 안락사는 61.6%가 찬성하는 결과를 보여 불치환자의 안락사를 불가피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성미혜, 임상간호사들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999;29(3):551-562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두 집단간 연령에 따른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sup>18)</sup> 실제 직종간 차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연령 보정을 실시한 후 비교할 것을 권고한다.

위 문제들 중에서 장기매매 허용여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간호사 집단보다 더욱 전향적인바(의사집단의 견해와 비교하면 더더욱 현격한 시각차가 있음),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그에 부합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5.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합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인간복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관리와 자신들의 설명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본 조사의 간호사들은 인공임신증절을 살인행위라고 규정하는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낙태의 허용범위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넓게 잡고 있는 편으로, 이러한 경향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sup>19)</sup> 이는 태아의 생명보다 모성 및 가족의 이득이 더 우선할 수 있다는 공리주의적 태도라 하겠다.

이상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집단간 의견의 합치가 비교적 이루어지는바, 현실적인 여러 대처방안을 함께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색인어 : 윤리문제 · 간호사의 인식 · 온라인조사 · 의사파업

18) 본 조사에서 응답간호사의 거의 대부분이 2,30대였는 데 반해, 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3,40대 이상으로 훨씬 연령이 높았다.

19) 이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는 본 연구의 설문문항과 구영모 등의 그것과 문항설계에 차이가 있어 카이검정은 실시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응답경향을 보였다.

=ABSTRACT=

## **A Survey of the Korean Nurses' Opinions toward the Ethical Problems**

KIM Mi-Ju\*

This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Korean nurse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the ethical problems. Structured questions were posted on Korean Nurses Association home page (<http://www.koreanurse.or.kr>).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including 28 questions was developed from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certification of 3 nurses and 1 health expert. The data were obtained from Oct. 2000 to May 2001 from 134 respondents and analys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chi^2$ -test that using other survey data in the litera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is collected data shows that nurses regard bribery as the most common ethical problem in health care practice. Other frequently mentioned problems are over-treatment/over-reimbursement and treatment refusal. It means that professional ethics are as serious among Korean nurses as biomedical issues themselves.
2. There are disagreements between Korean nurses and doctors on some ethical problem (bribery, over-treatment/over-reimbursement, doctors' strike, organ sale, euthanasia). Much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selling a person's living organs for transplantation and active euthanasia should be allowed. It means that nurses tend to take a progressive position than doctors.

**Key Words** : Ethical Problem, Nurses' Perception, On-line Survey, Doctors' Strike

---

\*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